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 감사원, 육계계열농가 면세유 공급 문제점 지적

투명하고 명확한 면세유 공급 필요성 대두

### 계열업체 면세유 지원 문제점 지적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최근 계열업체에 면세유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오면서 계열업체 및 육계업체가 향후 감사원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육계농가의 경우 계열업체의 닭을 사육하는 것이므로 농가가 지급받는 면세유 혜택은 계열화사업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계열업체가 면세유를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감사원은 계열업체에 면세유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면세유 규정이 명확히 법조항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육계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협을 통해 면세유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부정유통, 횡령 등 일련의 사태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공급체계를 만들어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측기 의무부착도 농가에서 사용한 만큼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제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면세유와 관련해 계열사 지원여부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 규정 신설 필요성 제기

이번 움직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당사자인 계열업체에서는 “육계 계열사 육 농가의 면세유 공급과 관련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와 같이 면세유를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은 계열업체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해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계열회사 입장에서는 농림특례 규정 제2장 ‘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서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위해 같은 규정 제4장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해서도 계열업체에 대한 특례규정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세수절감을 들어 면세유를 없애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특별조치법 개정시 면세유를 2년, 3년씩 기한을 연장하면서 항구적으로 면세유를 없애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FTA 등 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영구세로 전환하지는 움직임이 국회

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 지속적인 면세유 지원 이어져야

농림부 관계자에 따르면 계열사에 지원하는 면세유를 당분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개선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면세유 지원은 모든 농가들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계열농가에 면세유가 지급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만 감사원 지적과 같이 면세유가 계열사에 귀속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농가에 지원혜택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 곡물가격 폭등, 유류비 인상,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면세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가들은 유류 구매 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약 관련 규정의 부재로 면세유 지원이 중단될 경우 모든 농장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국내 양계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축산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면세유인 만큼 농가들에게 명확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 닭고기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령개정(축산물)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육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박 용 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학 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원 수의학(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원 수의미생물학(박사)

**경 력**

1978~1995 수의과학연구소 연구사, 연구관  
1993~1995 수의과학연구소 세균과 과장  
1995~현재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미생물학 교수  
1996~현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겸임교수  
2000~현재 미국 아이다호대학 겸임교수  
2007~2009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학장  
2007~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2008~2009 아시아 수의과학협회의 회장  
2008~2010 국무총리실 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2009~2010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0~2011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학회장  
2011~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  
2011~현재 보건복지부 국가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2011~현재 농식품부 중앙가축방역협의회 위원  
2011~현재 농식품부 가축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T/F 자문위원



**칼럼**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 현황 및 대책

H7N9, 중국서 4월 19일 현재 감염자 82명, 사망자 17명  
철저한 농장방역, 차단막 설치, 장화 분리 등으로 HPAI 예방해야

**■ 신종 조류인플루엔자의 특징**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저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고병원성은 제1종, 저병원성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중간 장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이 종종 인체 감염을 일으켜 왔다. 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2003년부터 15개국 총 622명 환자가 발생하여 371명이 사망(13년 4월 현재)하였고, 대부분의 환자는 감염된 조류와 접촉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발표하였다.

금번 중국 상하이 시를 비롯하여 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허난성 등 동부 4개 지역과 베이징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A(H7N9)형의 인체감염 발생은 과거에는 보고가 없었으나 지난 3월 31일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하였다. 금번 중국 H7N9형은 가금류에서는 저병원성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사람에게서는 산발적인 직접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AI로 감염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정확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 보건당국의 조사결과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중국의 오리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를 오가는 철새, 그리고 중국의 발생지역에 살던 닭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결합해 이전에 없던 신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까지 사람간 전파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유전자 변이 추이를 예의주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발생현황**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에 대하여 지난 2월 19일 최초 환자의 증상발현이 있었고 3월 31일 공식 보고되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4월 19일 현재) 확인된 감염 환자수는 82명이며, 이 중 17명이 사망하였다. 감염 환자의 직업별 분포를 분석하여 보면, 생산자(농가종사자) 7명, 유통종사자 7명, 일반인(가금류 소비자 등) 43명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에 대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최고책임자인 베르나르 발라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활

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면, 우리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금류에는 병원성이 매우 낮지만, 사람에게 감염시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H5N1)는 '03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인체감염은 없었으나 6,000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4회 모두 철새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위원회(가금질병분과위)에서 추정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08년부터 AI 상시예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가금류 검사, 야생조류분변 검사, 야생조류 포획검사, 종오리, 육용오리 등에 대한 항원·항체를 통하여 HPAI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는 검사시스템을 강화·운영하고 있다. '12년 이후 고병원성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오리농장에서 H3형, H6형이 검출되었고, 전통시장에서는 H9N2 등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

**■ 국내 방역대책**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16일 이후 HPAI 재발생이 없어 10월 이후 HP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AI 청정국 유지 등 차단방역을 위해서 첫째, 매년 상시 AI 예찰계획을 수립하여 가축의 임상관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HPAI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둘째,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중앙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의 농장에 대하여 소독실태 등 상시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중국의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더욱 강화하여 평시 8개반에서 24개반으로 확대·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농장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등록제를 실시하고 출입차량에는 GPS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다섯째,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AI 발생지역에 대한 축산관계자 출입자 소독 및 검역 탐지견을 해외 감염국 주요 항공노선에 투입하여 유입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있는 양계 농가에서는 철새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방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철새 등 야생조류의 농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축사내외 사용 장화 분리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지키면 신종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농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HOT ISSUE

0 0 2

# 이마트 수입닭고기 판매중단을 위한 기자회견 열어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을 수입닭고기로 길들이는데 앞장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각 협회, 이마트 성수점, 용산점, 은평점에서 1인시위 펼쳐며 농민입장 전달해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4월 15일(월) 이마트 성수점에서 이마트 수입닭고기 판매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닭고기가격 하락과 장기불황에 따라

국내 양계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마트가 수입닭고기를 판매하며 국내 소비

자들의 입맛을 수입닭고기로 길들이는데 앞장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계육협회 심순택 부회장은 “우리는 국내 양계산업이 90~95% 자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입육이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마트에 확인해 주었고, 이마트 측은 앞으로 수입닭고기를 국산닭고기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마트 측이 수입닭고기 판매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마트 수입닭고기 판매저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2일과 13일, 15일에는 양계협회가 이마트 성수점, 계육협회가 용산점, 토종닭협회가 은평점에서 이마트 수입닭고기 판매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펼쳐왔고, 기자회견 이후 4월 16일부터 각 협회가 이마트 성수점에서 교대로 1인시위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마트 측은 양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향후 수입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 축산박람회 사무국,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2013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손정렬 추진위원장

성공적인 박람회 위해 축산인들의 소중한 관심과 참여 당부

‘2013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3)’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가 지난 4월 17일(수) 제1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손정렬 추진위원장은 “건강한 축산, 내일의 생명산업”을 주제로, 축산업이 농업에 포함된 일개 분야가 아닌, 농촌 경제의 견인차이자 국가식량산업으로서의 위상

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서는 관련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축산농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축산인들의 소중한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전시규모가 2만 1천 915㎡(6천 641평)로 전년 대비 약 25%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업체 유치 243개, 부스 773개에서 업체 265개, 부스 800여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장 주요 동선 상에 독립부스인 프리미엄존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또한 전국 축산인이 모일 수 있도록 지역별 차량을 기존 약 20여 대에서 100여 대로 증차하고 전국 8개 지부를 대상으로 매일 32대의 수송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다.

\* 대회일정 : 9월 25일(수)~28(토)  
대구 소재 EXCO  
\* 문의처 : 02)574-0465  
(홈페이지 : www.kistock.co.kr)

## 닭고기, 최저 마진으로 최대 물량 공급하는 모범 축산식품

kg당 소매가격과 유통마진은 낮고, 국민 1인 당 공급량은 많아

지난 해 한 언론에서는 정부의 물가정책을 비난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식료품 중 하나가 한 계열사의 삼계탕이라고 거론했다. 고명진 씨는 가상의 주부를 등장시켜 직접 2008년과 2012년의 식료품 가격상승률을 비교해보니, 순창 찰고추장이 76%, 들깨 녹두삼계탕이 63%, 로스햄이 51%, 손큰두부가 50% 등으로 삼계탕이 두 번째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계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단순한 가격상승률 수치로 닭고기가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닭고기의 산업기여도를 분석

해 보면 최저의 유통마진으로 최대물량을 공급하는 축산식품이기 때문이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에서 2008년 당시 경기도 P지역 축산물 소매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축산물 소매가격이 kg당 한우고기 56,000원, 돼지고기 16,800원, 닭 5,842원으로 닭고기에 비해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단위 중량(kg) 당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닭고기에 비해 식품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위 중량 당 가격이 비싼 것이라고 한다면, 1고3저(고단백질,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닭고기의 식품적 가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품목별 가공·유통마진은 kg

당 한우고기가 48,149원, 돼지고기가 14,970원, 닭고기(정육)가 4,912원으로, 닭고기가 한우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마진을 적게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효율을 분석해도,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공급효율은 축산물의 전체 생산액 중 1인 당 공급량으로, 한 해 동안 생산한 닭 중에서 소비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을 나타낸 수치이다.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계란을 공급효율 100으로 정했을 때, 닭고기는 56, 돼지고기는 38, 쇠고기는 17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분석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고3저의 건강식품인 닭고기는 최저 유통마진으로 국민 1인당 최대 물량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축산식품임을 알 수 있다.

## 제 11회 연산오계 문화제 4월 20일 개최

연산오계, 1980년 천연기념물 265호 지정

‘제 11회 연산오계 문화제’가 지난 4월 20일 동국의 명산, 계룡산 자락의 지산농원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위령제는 연산오계마라톤(10km)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길놀이, 제의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식후 공연으로는 ‘요들러 장승일’ 씨가 연산오계 문화제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재미난 ‘꼬끼오 요들’을 연주해서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연산오계는 뼈는 물론 깃털이나 피부, 눈자위, 눈동자, 심지어는 발톱까지도 모두 검은 것이 특징이며, 지난 1980년 4월 1일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되었다. 연산오계는 조선시대 철종 임금과 고종 임금에게 진상을 올렸을 정도로 약용식품으로 명성을 얻어왔다.

이승숙 6대 연산오계 지킴이는 “조선 19대 숙종 임금이 증병을 앓던 중 연산오계를 드시고 건강을 회복했을 정도로 약성이 뛰어나다”며, “선조들의 뜻을 받들어 이 땅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연산오계의 혈통을 지키고 후세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산오계



HOT ISSUE

# 강화된 위생기준, 축산업의 6차 산업 도약에 장애물 우려

## 식약처, 도축업 및 도축영업자 위생기준 강화

정부는 지난 3월 23일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으며,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던 축산물 식품 위생 업무를 식품안전의약처(이하 식약처)로 이관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실현을 위해서는 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4대악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불량식품을 근절 한다며, 모든 식품의 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이관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의약품 규제가 주요 업무이던 식약처가 모든 식품 안전 업무를 책임짐에 따라, 식품산업의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1월 23일 정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며 강화된 식품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축업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시행규칙 별표2, 별표10, 별표12에서는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물질의 낙하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축장 작업실의 천장과 벽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고, 냉장 및 냉동실에 온도기록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축업자에게도 축

산물 운반에 대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도축장 위생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도축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른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7일~1개월) 처분을 받도록 하고, 계속기구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1개월) 등에 대한 처

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9일에는 (사)한국계육협회에서 축산물 안전위생 TF팀을 구성하여 강화된 기준에 대해 각 업체에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축산업이 1차(생산), 2차(가공), 3차(서비스)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으로 도약해 가기에는, 정부에서는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강화된 축산물 위생 안전 기준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농림부,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발표

### 사료구매자금, 어미가축 감축을 전제로 농업인 부담금리 1.5% 혜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지난 4월 15일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철저한 농가의 자구노력

을 전제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료가격은 2008년 450원/kg, 2010년 468원/kg, 2011년 512원/kg, 2012년 539원/kg, 2013년 538원/kg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농림부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을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의 자구

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축산물의 가격하락의 주원인이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인 만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어미가축 감축 등 공급축소를 위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준금리 4.7% 가정 시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1.5%이며, 나머지 금리에 대해선 농협중앙회 1%, 정부 2.2%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농림부는 사료비 상승과 가격하락이 맞물린 점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수요확대와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곡물사료 급여량을 절감하고 조사료 자급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업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어미가축 감축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토종닭협회, 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참가



토종닭 시식회와 토종닭산업 설명회를 하고 있는 (사)한국토종닭협회

### 토종닭의 우수성 홍보 및 한담 인증판매점 적극 유치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4월 9~12일까지 '2013년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에 참가해, 토종닭의 우수성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고 '한담 인증판매점'의 적극적인 유치에 나섰다. 국제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는 190여 개 지자체의 식재를 발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와 대형소비처인 외식·급식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

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의 길을 모색한 박람회이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박람회장 입구 내에 '한담인증마크'에 대해 설명하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참가부스에서는 토종닭 제품 시식회 및 병아리 전시 코너를 마련했다. 토종닭협회 김현태 대리는 "매년 박람회에 참가해 토종닭 시식회를 열어 토종닭의 쫄깃한 맛과 풍부한 영양을 소개했으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많은 외식업계 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토종닭산업의 현황과 토종닭의 식자재 사용방법 등에 대해 문의해 왔다"며, "꾸준한 홍보를 통해 한담 인증판매점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한양계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 저녁 양계인 대회

신록의 계절 5월 연사의 도시 광주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양계협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2013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양계인들의 총대의를 해왔던 대한양계협회가 어느덧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회를 지원해주셨던 전국 양계농가와 관련단체 및 업체,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기간 2013. 05. 03(금) 오후2시 ~ 05. 04(토) 장소 경북 광주 호남현대  
주관 (사)대한양계협회, 대구경북도지회 주최 달고기조금관리위원회, 계관자조금관리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경상북도, 경주시

**행사 일정**

일시	구분	시간	내용	
[1일차]	분임토의	13:00 ~ 14:00	•분과별 분임토의	
		13:30 ~ 14:30	•등록접수	
		14:30 ~ 15:00	•문화공연	
	개회식	15:00 ~ 16:00		•개회식
				•전국 양계인의 날 Vision 선포식
				•Break Time
				•2013 양계정책방향 설명 및 경쟁력 강화방안
	강연	16:00 ~ 16:30	•국제화 시대, 화합을 통한 양계업 성공비결	
		17:30 ~ 18:00	•양계 의무자조금 사업 설명	
		18:00 ~ 19:00	•Break Time	
문화의 밤	19:00 ~ 22:00	•양계인의 밤 행사		
	22:00 ~ 23:00	•행운권 추첨행사		
	23:00 ~	•숙소이동		
[2일차]	대회 마무리	07:00 ~ 09:00	•기상 및 조식	
		09:00 ~ 10:30	•보문관광단지 양계산물 시식행사	
		10:30 ~ 11:00	•대회 종합 평가 및 기타 토론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육계질병가이드 / IBH발병농가에서 IBD백신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Q. 지난 계군에서 12일령쯤 봉입체성 간염이 발병했습니다. 14일령 IBD백신을 하고 나서 발병이 더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감보로 백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봉입체성 간염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봉입체성 간염에 감염된 계군은 때로 1~2주간에 걸쳐 과다한 폐사가 나타나거나 상당히 많은 닭들의 성장 정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계군의 균일도를 망가뜨리지요. 봉입체성 감염은 면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닭의 면역상태에 관련이 있습니다. 면역이 강할 때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 질병의 정도가 더 심해지지요. 특히 면역을 억제시키는 질병이 감염된 상태에서 다른 질병이 동시에 감염되면 그 피해가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면역억제 질병인 닭전염성 빈혈(CAV)에 감염된 닭이 전염성기관지염(IB)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그 피해가 IB 바이러스 단독감염일 때보다 두세 배는 더 커지게 됩니다.

감보로 백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감보로병이 면역을 억제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이란 강도가 약한 훈련용 바이러스를 몸속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만으로도 면역상태를 일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약한 감보로 백신도 다른 질병이 발병 중인 상태일 때 백신을 하게 되면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중간독 플러스 백신을 사용할 경우는 면역을 억제하는 정도가 더 커질 것입니다.

지난 계군에서 봉입체성 간염이 발병했다면 이번에도 발병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만일 감보로가 최근 1년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주변에 감보로 발병이 없는 상태라면 백신을 생략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더불어 가능하면 효과가 약한 중간독 수준의 백신을 사용하고, 질병시기를 피하여 늦은 일령에 투약하기를 권장합니다. 부화장백신의 경우에는 항원항체 결합형 백신도 결국 생독바이러스가 F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면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농협목우촌, '주부9단 혼제치킨' 출시**

4월 30일~5월 13일, 블로그 체험단 모집 후 다양한 경품 제공할 예정

농협목우촌(대표이사 성병덕)은 건강과 영양을 중시하는 웰빙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4월 30일 '주부9단 혼제치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주부9단 혼제치킨은 '100% 우리고기' 사용 원칙에 따라 100% 국산 닭고기로 만들어져, 영양은 물론, 신선도와 위생 면에서도 월등한 제품이다. 주부9단 혼제치킨은 가족 식사나 나들이 먹거리를 위한 '주부9단 혼제치킨 한 마리 600g', 건강을 위한 '주부9단 닭가슴살 150g', 한 끼 식사를 위한 '주부9단 닭다리 300g', 아이들 영양 간식이나 간편한 술안주로 제격인 '주부9단 통다리 320g'을 출시해 다양한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데 노력했다.

특히 농협목우촌 관계자는 "목우촌R&D연구소와 품질관리팀이 달걀에서부터 병아리, 육계, 도계, 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부9단 혼제치킨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농협목우촌은 이번 주부9단 혼제치킨 출시와 함께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협목우촌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목우촌 블로그(<http://blog.naver.com/mogulove>)를 통하여 주부9단 혼제치킨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총 100명의 체험단에게는 주부9단 혼제치킨 4종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단이 사진과 함께 체험후기를 목우촌 블로그에 남기면 추첨을 통하여 다양한 경품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 공고**

□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 추진목표

- 농가가 참여하는 자조금 사업으로 양계경영관리의 안정화 및 전문 양계인 육성을 통한 육계산업기반 조성
-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닭고기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안심한 먹거리 제공 및 정보전달을 통한 양계산업 인식전환

□ 2013년 닭고기자조금 세입·세출 관련내용

(단위: 천원, %)

세 입			세 출		
구 분	거 출액	비 율	구 분	금 액	비 율
농 가 거 출	2,900,000		교육 및 정보제공	775,000	14.7
정 부 지원	2,363,000		조 사 연 구	100,000	1.9
			수 급 안 정	3,310,000	62.9
			소 비 홍 보	280,000	5.3
			대 의 원 선 거	50,000	1.0
			징 수 수 수 료	12,500	0.2
			운 영 비	198,500	3.8
			예 비 비	537,000	10.2
합 계	5,263,000	100	합 계	5,263,000	100

□ 2013년 닭고기자조금 사업 추진방향

- 양계농가의 자질향상으로 성공적인 닭고기자조금사업을 통해 농가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추진
- 타 축종에 비해 미진한 R&D분야를 육성하여 생산비 및 질병 피해 절감함으로써 농가수익증대
- 자조금거출 홍보에 역점을 두어 자조금사업홍보 및 지역별 대의원활동 강화에 중점

□ 2013년 닭고기자조금 세부사업 내용

- 교육 및 정보제공
  - 생산농가 자질향상 : 양계농가 HACCP 교육비 지원, 전국 양계인관련대회, 전국양계인 순회교육 및 토론회, 정책개발 세미나 개최
  - 생산 및 소비자정보제공 : 축산물전시행사, 구구데이페스티벌, 닭고기요리홍보 및 감승회, 닭고기요리경연대회, 자조금소식지 발행, 국산닭고기인증사업, 인터넷 정보제공, 양계사진공모전, 올바른 닭고기정보제공(지역별)
  - 자조금 거출활동 홍보 : 거출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조사연구
  - 조사연구용역 : 토종닭홍보 및 산업 발전방향연구, 토종닭고기영양성 평가 및 홍보, 축사시설현대화사업관리비
- 수급안정
  - 수급안정 홍보 : 육용실용계 수급예측 사업, 토종닭수급안정사업, 종계감축을 통한 수급안정사업
- 소비홍보
  - 광고 : 온/오프라인 닭고기 소비홍보, 해외수출을 위한 소비홍보, 신문광고

위와 같이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8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협회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제2차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2012년 닭고기자조금 결산(안)을 의결하고 있는 대의원들

2012년 사업 결산안 통과...자조금 인상안에 대한 신속한 동참 당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4월 18일(목) 대전 만남웨딩홀에서 제2차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한병권 의장은 “지금 양계산업은 장기 불황의 늪을 타개하기 위한 기로에 서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100만 수 감축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종계감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며 농가들의 종계도태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보고사항으로는 전차회의록 보고와 현재까지의 자조금 사업추진현황, 2012년도 닭고기자조금 감사보고가 있었다.

의결사항으로는 2012년 닭고기자조금 사업 결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대의원들

은 올해에도 자조금을 통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타 논의사항으로 대의원들은 자조금액이 육계 3원에서 5원(삼계 1.5원에서 3원)으로 인상된 것을 계기로, 계열사들도 자조금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HACCP교육에 보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HACCP 교육비 지원을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기관으로도 확대 실시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은 종계도태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의원들은 2012년도 결산안도 완료되었고 2013년도 닭고기자조금 사업예산이 대폭 인상된 만큼, 앞으로 자조금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 단체가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부화부산물물의 정의를 “부화부산물이라 함은 종계장 및 부화장에서 부화에 실패한 무정란·오

란·파란·사롱 및 난각을 말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줌으로써 부화부산물을 재 활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4월 종계부화분과 회의 개최

지난 4월 10일 천안 소재 대명가든에서 4월 종계분과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종계업 쿼터제 도입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육계 생산과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계업 쿼터제 도입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나 종계의 소유권이 90%이상 계열사가 차지하고 있어 종계사육농가의 결정권이 사실상 없다는데 공감하였다. 무엇보다 사육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막고 일부 계열사로 사육마리수가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

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자조금을 통한 정책개발에 힘써 달라는 주문과 함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에 종계인들이 최대한 동참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2차로 진행되는 (원)종계도태사업과 관련한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경북지역 일부 종계장에서 등외란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와 관련하여 계란을 판매할 경우 수집판매업에 등록을 하여야 함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양계협회,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환영

본회에서는 정부가 4월 15일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한데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각종 규제와

시장개방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가의 축산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정부의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환영한다

정부가 4월 15일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 일환으로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양계인들은 그동안 한·미, 한·EU FTA 개방에 이은 한·중 FTA 협상으로 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계란,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사료비상승과 가격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회를 비롯한 양계인들은 과잉으로 치닫고 있는 양계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미 원종계 47,500수를 감축한데 이어 종계 100만수 도태를 목표로 현재 45만수를 1차로 도태하고 나머지 55만수의 도태계획을 추진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5월부터 농가에 지원키로 한 사료 구매자금 1.5조원(특별사료구매자금-1.3조원, 사료직거래구매자금-2천억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계농가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 정부는 농가들과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수급안정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데 대해서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를 통해 양계산물수급이 이루어져 산업이 안정되길 바라며, 축사시설개선과 관련해서도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가들과 협의해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길 바란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과 관련해서도 국내에 심각한 소비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시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3년 4월 15일

(사)대한양계협회

(사)대한양계협회



부화부산물,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 신설 요청

본회에서는 환경부에 부화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화부산물에 대한 명칭을 구체화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되는 현 상황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화장은 축산법 제2조 4항에 의거 축산업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부화장에서 발생하는 난각·무정란 파란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3항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이처럼 부화부산물을 현행법상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형부화장의 경우 매주 엄청난 양의 부화부산물이 생기고 있으나 부피가 크고 중량이 큰 탓에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난각에는 다량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고, 무정란·오파란 등도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친환경 비료 또는 사료첨가제로써의 재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어 재활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 이마트 수입닭고기 판매중단 요구 관철돼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가 요구한 이마트 수입닭고기 판매 중단이 해결되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지난 4월 12일부터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와 같이 이마트본점(성수점)과 용산점, 은평점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이마트 측에 수입닭고기 사용중단을 요구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27일 대규모 양계농가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마트의 수입닭고기 판매는 양계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심각한 문제이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키로 결의한 바 있다.

(사)대한양계협회는 금번 이마트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수입닭고기를 향후

국내산 닭고기로 전환하여 국내산 닭고기 판매중대에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는 이마트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상호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사)대한양계협회는 이마트의 국내산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번 이마트 수입닭고기 판매중단 촉구와 관련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하지만 수입닭고기를 유통하는 대형 판매장이 상당수 있는데다 특히 대기업의 단체급식에 많은 양의 수입닭고기가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양계협회는 앞으로 수입닭고기를 사용하는 대형마트·급식공급업체 및 치킨업체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 (사)한국토종닭협회

KOREAN NATIVE CHICKEN ASSOCIATION  
(사)한국토종닭협회

### 4월 정기 이사회의 개최



본 협회 4월 정기 이사회의를 지난 10일 대전 유성 소재 '만나'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는 한담인 대회 준비와 AI 건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안건토의에서

산닭유통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이사 승인, AI 관련 사업 등 협회 운영방침에 대해 논의하며 원안대로 통과했다. 특히 한담인 대회 건에 대해 이사들은 협회 설립 10주년과 한협 60주년 공동 기념행사로 차질없이 만전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연수 회장은 "최근 중국에서 HPAI

가 발생하고 국내 전통시장 토종닭에서 LP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차단방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산업적으로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 소식지 홍보 등으로 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대외적으로 AI로부터 우리 국민은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이라고 하며, 그 이유로 이 회의는 중계와 병아리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계열사는 병아리를 생산해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이

계열과 개인 상생문제, 여전히 뜨거운 감자 본 협회 중계부화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대전 유성 소재 '만나'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분과위 운영방안에서 계열사와 일반 농장과의 상생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계열사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어불성설

미 작년 전체 중계의 70%를 계열사에서 분양했고, 올해도 50% 가량 중계 분양할 계획이어서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급조절, 병아리 계획 생산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 동반성장하기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개진되었다.

### 중국 AI 발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소비자연맹), 김재홍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정문성 전무((주)하림), 문정진 상임부회장((사)한국토종닭협회) 등 학계, 소비자, 업계 전문가가 나섰다.

토론 중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AI

#### 문정진 상임부회장 토론자로 나서

중국 신종 AI 발생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향 제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4월 1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성범 의원 주최,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중국 AI 인체감염 발생과 우리나라 AI 검색현황(농림축산검역본부 이윤정 연구관) ▲조류인플루엔자와 식품의 안전성(이화여자대학교 오상석 교수)의 지정 발표가 있었다.

이후 토론에 정덕화 회장((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이향기 부회장(한국

로 사망자는 단 한사람도 없다"고 강조하며, "언론에서 조류독감이라고 떠드는 바람에 무고한 축산농민 2명이 자살하고 관련 사육농가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말하며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많은 토론자들이 AI와 관련해 중국과 국내의 사육, 도계, 유통 환경이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는 AI 감염된 닭은 단 1%도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홍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언론, 업계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 도라지 찜

닭다리는 육질이 단단하고 질감이 쫄깃하며, 지방분포도 좋아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양만점이다. 또한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가래를 삭이고 혈당을 낮추어 주어 요즘 같이 황사가 많은 시기에 좋다.



- 재 료** 닭다리 10개, 통도라지 5뿌리(굵은 것), 양파 1/2개(100g), 표고버섯 4장, 청·홍고추 각 1개  
**양 념 장** 간장 3큰술, 양파즙 1큰술, 청주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 술, 참기름 1/2큰술, 황설탕 1+1/2 큰술, 물엿 3큰술, 후추

Cooking

1. 닭다리는 씻어 2등분하여 끓는 물에 데쳐 건진다.
2. 통도라지는 껍질을 벗기고 4cm 길이로 썰고 가는 뿌리는 모아 조리용 실로 묶어준 다음 물에 담가 쓴 맛을 우린다.
3. 양파는 큼직하게 썰고 청·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씨를 털어준다.
4. 표고는 불려 기둥을 떼고 2등분한다.
5. 양념장은 재료를 섞어 만든다.
6. 냄비에 닭다리, 표고, 절반양의 양념장과 물을 자작하게 붓고 끓기 시작하면 도라지, 양파, 남은 양념을 넣어 찜을 한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날말맞추기

1			2		4
			3		
5	6				
					11
7		8		10	
		9			

◇가로풀이 ✨ ✨

- 1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세 개, 저녁에는 네 개의 도토리를 준다는 뜻으로, 잔술수를 이용해 상대방을 현혹하는 행위
- 3 재주와 지혜가 뛰어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 5 약품을 써서 희게 함
- 7 어떤 일이나 현상,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 9 닭의 품종, 긴꼬리닭이라고도 한다.
- 10 축하할 만한 기쁜 일

◇세로풀이

- 1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표
- 2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음
- 4 어린아이를 기름
- 6 수정체가 회백색으로 흐려져서 시력이 떨어지는 질병
- 7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숙련의 정도
- 8 배 안의 모든 사무를 책임지고 선원들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 10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 11 어떤 대상이나 사물 따위를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감			수	준	급
보	괘	선	거		이
로		매		식	기
병	목				별
	단	백	질		손
부	화		서	방	남

45호 정답



... 46호 정답은 47호에 게재합니다

양 계  
비법전수

개방계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삼중의 윈치커튼, 혹은 이중윈치커튼의 내부에 검정색 부직포 겹쳐야...

최근에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절감이 최대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연료비가 부담이 될 때 손실되는 열을 막아주는 것은 소득과 바로 연결된다.

우선 윈치커튼의 열손실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중·삼중의 윈치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윈치커튼 외부에 30~60cm 간격을 띄워서 외부를 비닐밀폐하고 밑에 부분만 조금 열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윈

치커튼과 비닐 사이의 공간에서 1차 예열과정을 거쳐서 계사 안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외부에 비닐커튼을 하나 더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의 베란다와 같이 공기층에 의한 단열효과가 있어서 외풍이 없어지고 계사 내부는 아주 온화해지게 된다.

만약 윈치커튼 밖에 비닐커튼을 치기가 곤란하다면, 기존의 이중윈치커튼의 내부에 검정색 부직포를 한 겹 더 쳐서 윈치커튼에 의해서 손실되는 열을 방지하고 계사 내부를 어

둑게 관리하여, 외부의 빛으로부터 닭들이 예민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팬 박스 통하여 손실되는 열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팬 외부에 서터가 달려있다 할지라도 팬 박스 틈을 통하여 외부의 찬바람이 엄청나게 밀려들어온다. 이러한 팬 박스를 비닐로 밀폐하거나 보온덮개 등을 둘러쳐 줌으로써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열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 AI 차단방역 철저

시 에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